

2023. 3. 17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
(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)

스마트건강과장	이응창	02-2133-7560
스마트건강정책팀장	전기호	02-2133-7562
담당자	최지혜	02-2133-7566
국제협력과장	조혜정	02-2133-5260
미주구주팀장	전영우	02-2133-5284

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
(마이클 블룸버그 면담)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오세훈 시장, 건강 형평성 제고 우수정책 세계에 알리려...건강도시 시장회의 참석

- 런던 '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'서 70개 도시 대표 만나 비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 논의
- 오 시장, 14개 도시 시장에 서울시 금연정책 등 건강 불평등 해소 우수사례 공유
- 서울시, 블룸버그 재단 등과 협력 통해 건강 격차 해소...'18년부터 비만 예방·금연 정책 추진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5일(수) 오전 9시 30분<현지시간>,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리는 「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」에 참석해 <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서울시 우수정책>을 소개했다.
 - 건강 도시 파트너십(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, PHC)은 암·당뇨·심혈관계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(NCDs)과 상해 예방을 위해 구축된 서울·런던·파리·도쿄 등 세계 70여 개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크다.
 - 블룸버그 재단은 세계보건기구(WHO), 바이탈 재단(글로벌건강단체)과 함께 참여 도시들이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 및 상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- 올해 최초로 열린 ‘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(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)’에서는 전 세계 14개 도시 시장과 70개 이상 도시 담당부서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더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도시별 건강정책 및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토론했다.

- 이날 오 시장은 14개 도시 시장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▲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시민들의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한 도심공원, 녹지공간 확보 및 투자 필요성 ▲저소득층을 위한 시립병원 등 공공 의료시설 확충 ▲서울시의 금연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했다.

- 서울시는 2010년 11월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」 제정을 시작으로 ‘담배 없는 도시 서울’ 구축을 위해 ▲저소득층 금연치료 및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▲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▲담배 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 - 흡연은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서울시는 실내는 물론이고 학교 통학로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.

- 이후 오 시장은 12시 45분<현지시간> 블룸버그 재단의 창시자이자 세계 보건기구의 글로벌 대사인 마이클 블룸버그(Michael R. Bloomberg)와 면담에서 손목닥터 9988 등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을 소개하고,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협력 사업 확대를 논의했다.
 -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‘손목닥터 9988’은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시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이다. 걸기 활동량, 식단관리, 건강정보 확인에 따라 건강 포인트가 지급되고, 6개월간 최대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포인트는 약국이나 병원,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.

- 서울시는 2018년부터 블룸버그 재단이 지원하고 세계보건기구와 바이탈 재단이 협력하는 ‘건강도시 파트너십’에 참여하여 예산 및 기술지원을 통해 비만과 금연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.
 -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받고 아동·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당류 식품 섭취 감소 캠페인과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다.
 -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미화 5만 달러를 지원받고,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 및 시민 인식조사,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.

- 서울시는 앞으로도 블룸버그 재단·세계보건기구 등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, 비전염성 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- **회 의 명** :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(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Summit)
- **목 적** : 암·당뇨·심혈관계 질환 등 ‘비전염성 질환 및 상해’ 예방을 위한 참여 도시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협력
- **기 간** : '23. 3. 14.(화) ~ 3. 16(목), 3일간
- **참 석** : 14개 도시 시장, 70개 도시 전문가 등 300여명
- **장 소** : 세인트 판크라스 르네상스 호텔(런던)
- **주 최** : 블룸버그 재단, 런던시, 바이탈 재단

※ 주요참석 인사 : 마이클 블룸버그 등

【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 일정 】

일 시	프 로 그 램	
	시 장	도시대표(Technical staff 등)
3.14.(화)	· 환영 만찬(런던, St. Pancras Renaissance Hotel)	
3.15 (수)	오 전	시 장 회 의(라운드테이블) ▶ 참석 도시 시장만 참석 전문가·실무급 회의(세션) (참석 도시 실무대표 등 참석)
	오 후	도시 간 토론·정책 공유 등(전체회의) ▶ 70개 참석 도시 전체 참석
3.16 (목)	오 전	우수 의료 현장·의료기관 방문 도시 간 네트워킹, 우수 정책(사례) 공유
	오 후	